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실천하는 보령시의회

2023년 해외 지방자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국외연수결과 보고

【 개 요 】

- 목 적 :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노인 및 환경분야 선진사례를 통해 시·군 정책반영 방안 모색
- 기 간 : 2023. 1. 29(일) ~ 2. 7(화) / 7박 10일
- 국 가 : 아랍에미레이트, 튀르키예
- 인 원 : 35명(충남 시·군의회장 14 + 수행원 21)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보 령 시 의 회)

2023년 해외 지방자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충남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국외 연수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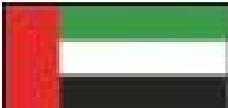
I 연수 개요

【 목적 및 방향 】

- ◆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노인 및 환경 분야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각 시군의 정책에 반영
- ◆ 해외 지방정부 의회 운영현황과 비교 분석을 통해 의회독립에 따른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
- ◆ 관광산업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시군 관광정책에 반영

□ 개 요

- 연수기간 : 2023. 1. 29(일) ~ 2. 7(화) / 7박 10일
- 연 수 자
 - 전체 35명 (시·군 의장 14명, 수행원21명)
 - 보령시의회 3명 (박상모 의장, 행정6급 김용준, 운전7급 이상원)
- 방문국가 : 아랍에미레이트, 튀르키예

	아랍에미레이트
1. 두바이	

1. 29.(일) ~ 1. 31.(화)



	튀르키예
1. 이스탄불	2. 카에세리
3. 안탈랴	4. 에페소

1. 31(화) ~ 2.6(월)

□ 국가별 주요 방문지

아랍에미레이트
튀르키예

● 두바이 국립 요양원 방문

- 뷰책메제시 및 시의회 방문
- 한국전 참전용사 및 한인회 간담회
- LOTS 요양원 방문
- CEVREVAKFI 환경재단 방문
-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 방문

□ 방문자 명단

의 회 명	직위(직급)	이 름	의 회 명	직위(직급)	이 름
천안시의회	의 장	정 도 희	계룡시의회	의 장	김 범 규
	행정6급	윤 영 돈		행정5급	황 관 식
	별정7급	박 정 현		청원경찰	박 진 영
	전산7급	박 현 수	당진시의회	의 장	김 덕 주
공주시의회	의 장	윤 구 병		행정7급	임 병 우
	행정7급	윤 익 로	금산군의회	의 장	심 정 수
보령시의회	의 장	박 상 모		별정8급	최 수 범
	운전7급	이 상 원	부여군의회	의 장	장 성 용
	행정6급	김 용 준		행정7급	김 혁 수
아산시의회	의 장	김 희 영	청양군의회	의 장	차 미 숙
	행정8급	김 정 대		행정7급	진 승 희
	행정7급	이 선 주	홍성군의회	의 장	이 선 균
서산시의회	의 장	김 맹 호		행정6급	송 재 철
	행정8급	장 준 호		행정8급	홍 석 창
논산시의회	의 장	서 원	예산군의회	의 장	이 상 우
	행정7급	장 상 규		행정7급	최 병 호
	운전7급	서 형 연	태안군의회	의 장	신 경 철
		행정7급		조 정 형	

□ 방문지역



□ 방문일정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일차 1.29(일)	➤ 출국 : 인천 ✈️ 두바이	EK323 (시차 : -5h)
2일차 1.30(월)	두바이 국립 요양센터 방문	
	문화탐방	두바이 시내
3일차 1.31(화)	➤ 이동 : 인천 ✈️ 두바이	UAE항공 EK123
	부채메제시 및 시의회 방문	부채메제 하산 하문 시장
	부채메제시 및 참전용사와의 만찬	
4일차 2.1(수)	➤ 이동 : 이스탄불 ✈️ 카이세리	터키항공 TK2016
	🚗 이동 (카이세리 → 가파토키아)	
	문화탐방	가파토키아
5일차 2.2(목)	🚗 이동 (콘야 → 안탈라)	
	문화탐방	하드리아누스의문 구시가
	석식 및 호텔 투숙	
6일차 2.3(금)	문화탐방	안탈라 시내관광
	🚗 이동(안탈라 → 파묵칼레)	하에리폴리스, 석회봉, 노천온천 등
7일차 2.4(토)	🚗 이동(파묵칼레 → 에페소)	
	문화탐방	고대유적 에페소 등 시내관광
	➤ 이동 : 이즈미르 ✈️ 이스탄불	
8일차 2.5(일)	한인회 간담회	
	문화탐방	이스탄불
9일차 2.6(월)	이스탄불 요양원 방문	
	환경재단 방문	
	코트라 아스탄불 무역관	
	➤ 이동 : 이스탄불 ✈️ 두바이	UAE항공 EK122
10일차 2.7(일)	➤ 이동 : 두바이 ✈️ 인천	UAE항공 EK322

□ 국가별 현황

■ 아랍에미리트

아라비아 반도 남동부 페르시아 만과 접하고 있는 연방국. 공식명칭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nited Arab Emirates,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줄여서 UAE라고 부르며, 수도는 아부다비. 화폐는 디르함을 사용한다.

에미리트(Emirate, إمارة)는 한국어로 '토후국'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UAE의 정식명칭인 United Arab Emirates는 글자 그대로 7개의 에미르국(Emirate)이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였다는 뜻이다. 미대륙에서 주(state)들이 연합하여 만든 국가 USA와 어렵듯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한민국에서도 이 나라의 이름을 아랍토후국연합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며, 주로 과거에 많이 쓰던 명칭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지만, 1971년까지는 영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으며, 또 외국인 인구가 많아 영어가 널리 쓰인다.

수도는 아부다비, 인구기준 최대도시는 두바이. 아부다비 단독으로 아랍에미리트 면적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관례상 7개의 에미리트 중 가장 강력한 아부다비의 아미르가 UAE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에미리트들의 영향력에 따라 각 에미르들이 각료를 맡는다.

예컨대 두바이는 UAE 내에서 2번째 서열이므로, 두바이의 아미르는 UAE의 부통령 겸 총리다. 관례상으로는 아부다비의 아미르가 UAE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절차에 따르면 7개국 수장으로 구성된 연방 최고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선출되기 때문에 향후 정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다른 토후국의 아미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영국으로부터 비교적 최근인 1971년 12월 2일에 독립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직 3명뿐이며 이 3명은 모두 아부다비의 아미르였다.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고 있는 7개 토후국의 각 면적은 다음과 같다. 아부다비 67,340km², 두바이 4,114km², 샤르자 2,590km², 라스 알 카이마 1,684km², 푸자이라 1,166km², 움 알 쿠와인 755km², 아즈만 259km²

■ 개요

- ◆ 수 도 : 아부다비(290만명)
- ◆ 인 구 : 928만명 ('21.6월, 두바이_354만명)
- ◆ 면 적 : 8만 3600km² (한반도의 약 1/3)
- ◆ 민족구성 : 아랍족, 외국인(아시아계, 이란계)
- ◆ 종 교 : 이슬람교96%(수니파 85%, 시아파 15%), 기독교 및 힌두교 4%
-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연방제, 대통령 중심제(7개 에미리트(emirates)로 구성)
 - 주요인사
 - 대통령 :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아부다비 통치자)
 - 왕세제 : 모하메드 빈 자이드 왕세제(차기 대통령직 계승자)
 - 부통령 겸 총리 : 모하메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두바이 통치자)
 - 외교장관 :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아부다비 출신)
 - 의회구성 : 연방평의회 40명(임기 4년,여성 50% 의무화)

■ 경제현황(2021)

- GDP : 4153억\$
- 경제성장률 : 3.9%
- 1인당 GDP : 4만 4741\$
- 교역규모 수출 : 3465억\$ /수입 : 2677억\$
- 주요자원
 - 원유매장량 : 978억 배럴(세계 8위, 5.8% 점유)
 - 가스매장량 : 7.8조m³(세계 7위, 4% 점유)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1980.06.18.
- 교역현황 : 6,142억불
 - 수출액 : 3,465억불 (자동차부품, 기호식품, 무기류 등)
 - 수입액 : 2,677억불 (원유, 석유제품, 알루미늄 등)
- 교민현황 : 9,642명(아부다비 : 5,678명, 두바이 : 3,153명 등)('21)

■ 튀르키예

국호인 튀르키예(Türkiye)는 오스만어 튀르키예(ترکیه / türkiye)가 어원이며 '튀르크인의 땅'을 뜻한다. 튀르키예인은 튀르크클레르(Türkler), 튀르키예어는 튀르크체(Türkçe)라 한다. 튀르크라는 이름은 민족의 이름으로, 본래는 '용감하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총 7개의 지방(bölge, 별게)으로 구분되나, bölge는 행정구역이 아니며, 최상위 행정구역은 81개의 도(il)이다. 공화국 건국 이후 튀르키예의 행정구역 제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으며 프랑스의 레지옹(région) - 데파르트망(département)의 관계와 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프랑스의 레지옹은 실체가 있는 행정구역이지만, 튀르키예의 bölge는 행정구역이 아닌, 한국에서 호남, 영남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은 지역 구분 단위이다. 또한 il은 최상위 행정구역이지만 지방자치권이 없으며 정부에서 책임자를 임명한다. 한국 외교부와 언론에서는 이 il을 '주'라고 번역한다.

각 도는 군(ilçe·일체), 시(şehir·셰히르), 광역시(büyükşehir·뷔윅셰히르), 면(kale·칼레), 리(köy·코이), 동(mahalle·마할레), 대로(cadde·жат데), 골목(sokak·소각)등으로 세분화된다. 대부분의 도는 도청 소재지(belediye·벨레디예)의 위치에서 그 이름을 따온다. 또한 몇 개의 도를 묶어 구분하는 지방(bölge·별게)의 개념이 있다.

크게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마르마라해 지방(Marmara Bölgesi)', 트라브존·종굴다크·시노프 등을 중심으로 한 '흑해 지방(Karadeniz Bölgesi)', 이즈미르를 중심으로 한 '에게해 지방(Ege Bölgesi)', 안탈리아·메르신 등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지방(Akdeniz Bölgesi)', 에르주룸·반·디야르바크르 등을 중심으로 한 '동부 아나톨루 지방(Doğu Anadolu Bölgesi)', 가지안테프·샨르우르파 등을 중심으로 한 '남동 아나톨루 지방(Güneydoğu Anadolu Bölgesi)', 앙카라·콘야를 중심으로 한 '내부 아나톨루 지방(İç Anadolu Bölgesi)'으로 구분한다.

튀르키예의 81개 도 중 가운데 가장 큰 도는 내륙 지방의 콘야이며, 두 번째로 가장 큰 도는 시바스, 가장 작은 도는 이스탄불 근처의 알로바이다. 거의 50배 면적 차이를 보인다. 콘야도와 시바스도의 면적을 합치면 대충 대한민국 사이즈가 나온다.

■ 개요

- ◆ 수 도 : 앙카라 (570만명)
- ◆ 인 구 : 8,468만명(2021)
- ◆ 면 적 : 77만 9452km² (한반도의 약 3.5배)
- ◆ 민족구성 : 튀르키예인(76%), 쿠르드인(15.7%), 기타(약 70여 민족)
- ◆ 종 교 : 이슬람교(99%), 기독교, 유대교등 ※ 헌법상 정교분리
-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의원내각제에서 2017년 개헌,임기 5년, 연임 가능)
 - 주요정당 : 정의개발당(AKP : 여당_290석), 공화인민당(CHP_139석), 인민민주당(HDP_61석), 민족주의운동당(MHP_49석), 좋은당(Iyi Party_39석)
 - 의회구성 : 총600석, 임기5년 ※ 하산아쿤 시장 : 공화인민당

■ 대통령 : 레셉 타입 에르도안 (Recep Tayyip Erdoğan)

■ 경제현황(2021)

- GDP : 7,959억\$
- 경제성장률 : 9%
- 1인당 GDP : 9,406\$
- 실업률 : 11.2%
- 교역규모 수출 : 2,253억\$ /수입 : 2,714억\$역불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1957.3.8
- 교역현황 : 82.6억\$
 - 수출액 : 70억2천만\$ (플라스틱류, 철강, 기계 및 부품, 자동차 부품 등)
 - 수입액 : 12억4천만\$ (의약품, 기계 및 부품, 자동차 부품 등)
- 교민현황 : 2,727명(2020)

II

2023년 해외 지방자치 우수사례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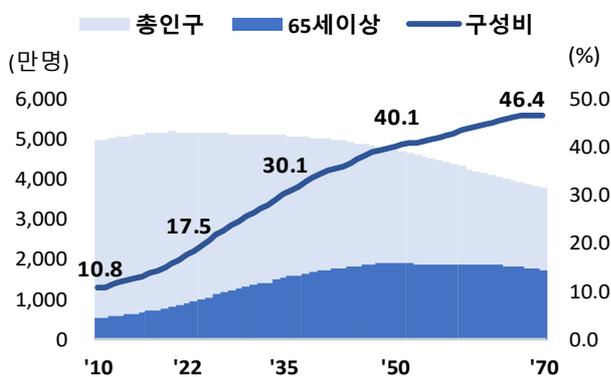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보호시설 확충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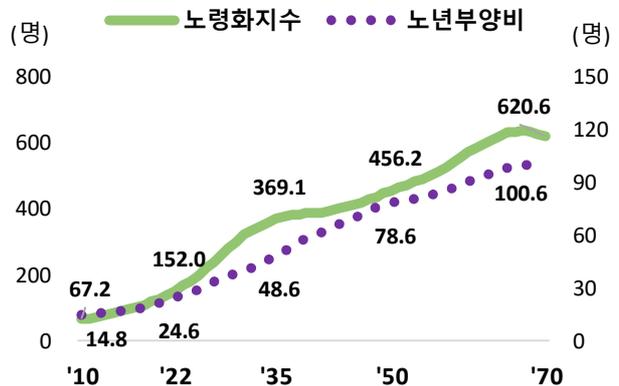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돌입

'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임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
 회에 진입하고, '35년에는 30.1%, '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2년 24.6명이며, '35년에는 48.6명, '50년에는 78.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구성비 >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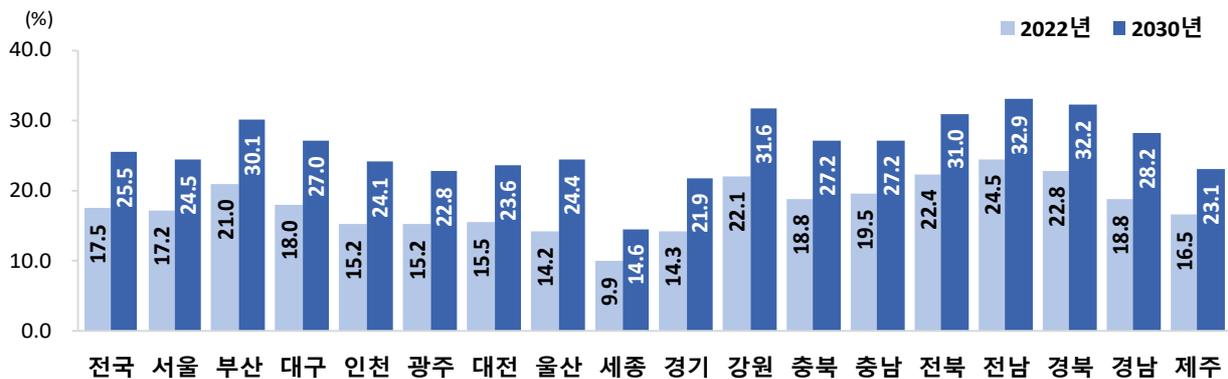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지역별 고령인구 현황

'22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인 지역은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 강원(22.1%), 부산(21.0%) 5곳임

'28년에는 세종(13.4%)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 202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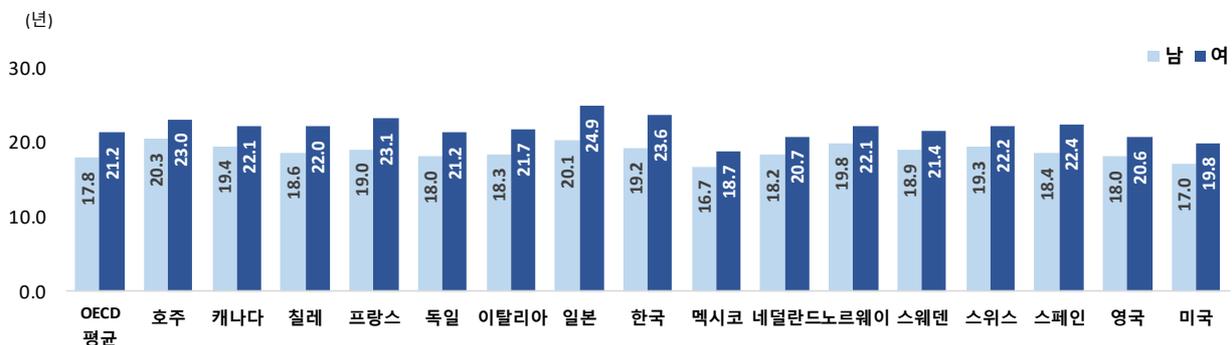
■ 기대 여명

'20년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 75세의 기대여명은 13.3년으로 전년 대비 각각 0.2년, 0.1년 늘어남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23.6년으로 남자보다 4.4년 더 길고, 7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14.7년으로 남자보다 3.1년 더 길었음

'20년 우리나라 65세의 기대여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기대여명(65세, 2020) >



자료: OECD, 「Health Status」 (2022.9.4.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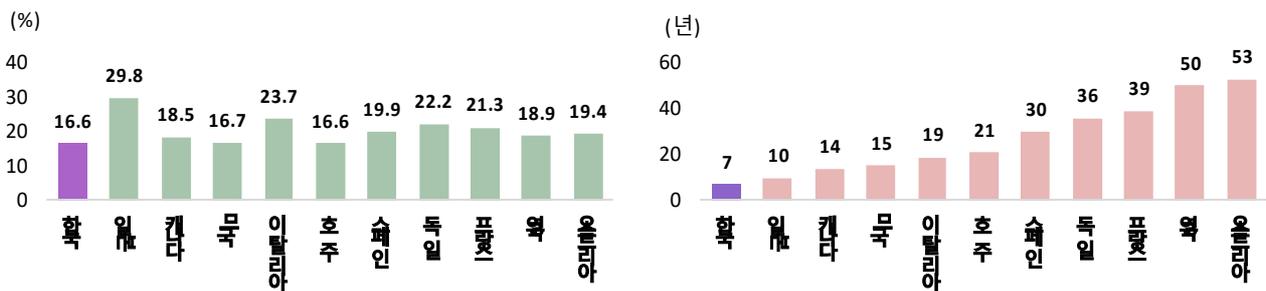
주: 1) 2020년 자료가 공표된 OECD 35개국의 산술평균임

■ OECD 주요국 현황

'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대부분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음

일본(29.8%), 이탈리아(23.7%)를 비롯한 13개 국가는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0%)에 도달하는 속도는 OECD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7년에 전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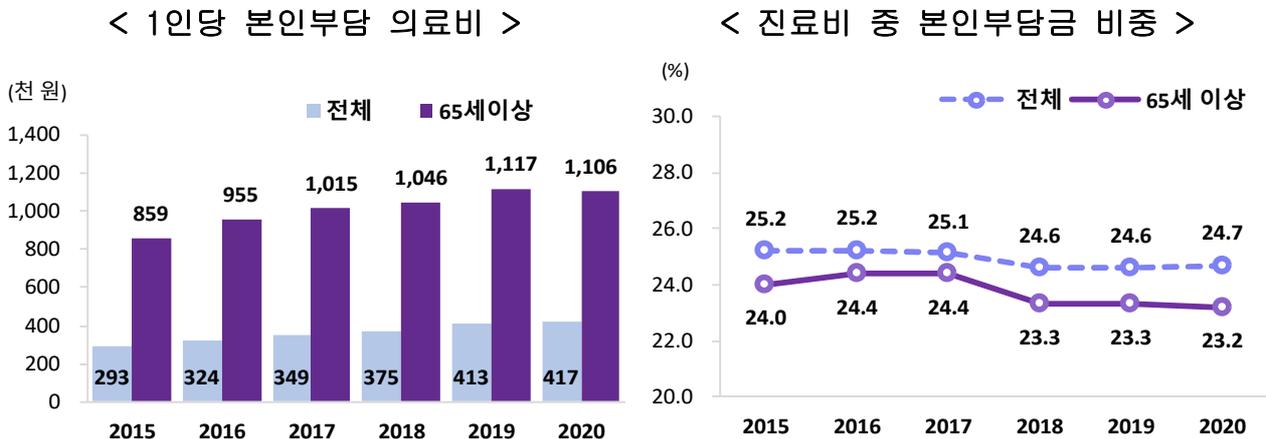
< OECD 주요국 고령인구 비중 (2021) > < OECD 주요국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 연수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 본인부담 의료비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475만 9천원, 본인부담금은 110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만 7천원, 1만 1천원 감소함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은 전체 대비 각각 2.8배, 2.7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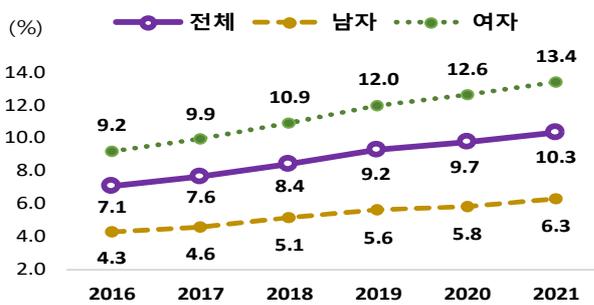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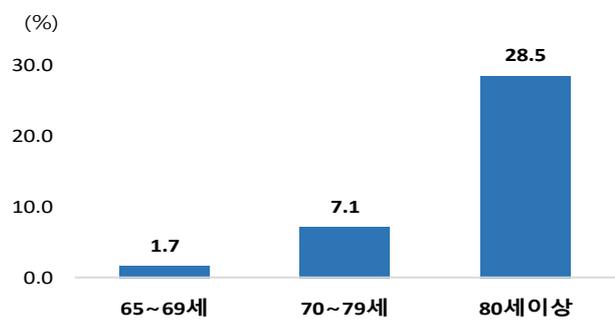
■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증가

'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10.3%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성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여자가 13.4%로 남자(6.3%)의 2.1배 수준임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65~69세는 1.7%, 70~79세는 7.1%이며 80세 이상은 28.5%로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함

<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 연령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중(2021)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 노인 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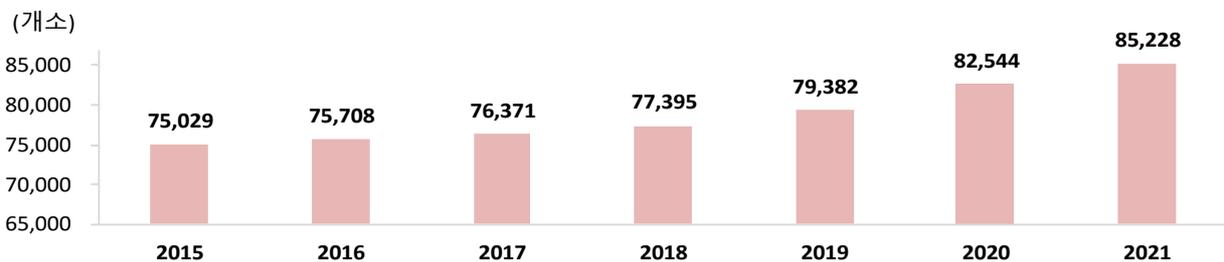
2021년 노인 복지시설은 8만 5,228개소로 전년 대비 3.3% 증가함

'21년 노인 복지시설 수는 8만 5,228개소로 전년 대비 3.3% 증가함
 노인 복지시설 수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전년 대비 2,772개소(38.4%) 증가한 반면,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15개소(4.3%) 감소함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감소 추세이나,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증가하고 있음

< 노인 복지시설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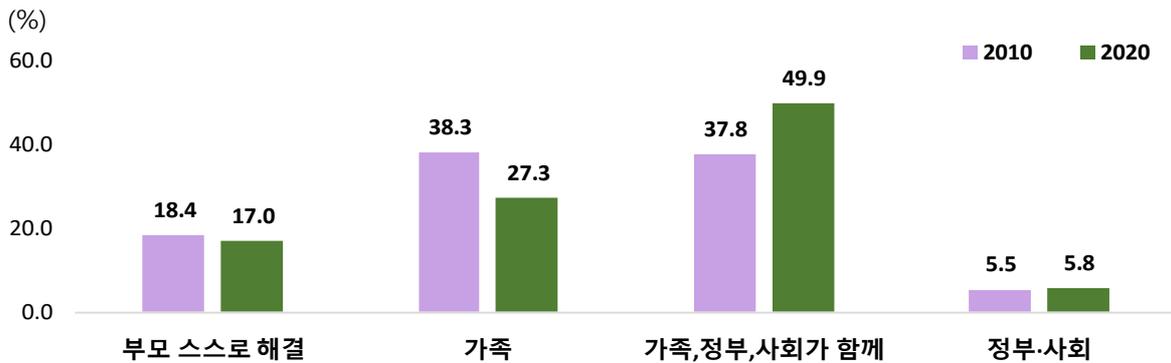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변화 (통계청 자료)

지난 10년간 **부모 부양은 가족·정부·사회의 책임**, 가사는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고령자 의식변화

‘20년 고령자의 49.9%는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12.1%p 증가함
 부모 부양은 가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27.3%로, 지난 10년간 11.0%p 감소함
 가족이 부양할 경우 장남(만며느리)이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지난 8년간 16.0%p 감소하였음
 부모 스스로 노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는 17.0%로 지난 10년간 1.4%p 감소함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임

‘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4% → 20%)는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함
 ‘22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인 지역은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 강원(22.1%), 부산(21.0%) 5곳임

방문시 중점 확인 사항

1. 노인복지 요양센터(두바이, 튀르키예)

- 초고령사회 대응 지방정부 요양 정책
- 노인요양 시설 운영 등 시스템 현황
- 노인인구의 추이 및 사회활동 현황

2. 튀르키예 뷰책메제시

- 지방정부의 규모 및 복지 서비스 현황
- 참전용사 등 노인관련 정책

3. 한국전쟁 참전용사

- 참전용사 요양 정책 현황
- 정부차원의 예우 정책 및 한국관 설치 현황

4. 한인회

- 한인회 규모 등 일반현황
-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정책 등 한인회 지원 방안

5. 환경관련 단체

- 비영리 단체 운영 현황 및 규모
- 지속가능한 환경의식 제고 방안 및 운영 현황

6.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

- 이스탄불 내 국내 기업 현황 및 규모
-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수출 및 교류 현황 등

7. 문화탐방

- 관광자원 활용현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너지 정책 탐방

Ⅲ 연수 주요 내용

□ Seniors' Happiness centre 두바이 국립 양로원 방문



- 일 시 : 2023. 1. 30(월) 10:00 ~ 11:00
- 장 소 : 두바이 국립 양로원
- 참 석 : Dr. Salwa Alsuwaidi <전문의료서비스부분 책임자>



■ 주요내용

시설은 두개의 건물로 나뉘는데 첫번째 건물은 1993년에 설립된 주 요양 시설. 24/7 간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노인분들이 거주하시고 계심. 이 시설에 계신 모든 노인분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거주하시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 많음. 두번째 설립된 건물은 코로나 기간 2020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주로 외부 환자(재활/물리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시고 귀가하시는 노인분들)를 담당하는 시설. 수영장과 운동 시설이 갖춰져 있다.

Q. 총 요양하고 있는 노인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A. 총 20명의 노인분들이 상주하고 계신다. 총 의사는 나 포함 네명이고 간호사는 총 59명이다.

Q. UAE에 존재하는 유일한 국립 요양원이라고 했다. 이 시설에 요양하실 수 있는 노인분들을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 우리 시설에서는 노인분들을 구별하거나 선별하지 않는다. 국가 의료 기관인 DHA에서 조건을 체크한다. 60세 이상이셔야 하고 자녀가 없는 에미라티 노인분들일 경우 이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다. 이 조건에서 벗어나는 노인분들은 사설 요양 시설로 보내진다.

Q. 가장 젊으신 노인분과 많으신 노인분의 연세는 어떻게 되나요?

A. 55세, 90세. 55세 노인분은 치매 증상이 일찍 나타나셔서 시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Q. 시설 운영은 무료인가요?

A. 60세 이상의 자녀가 없는 에미라티 노인분들이라면 국가에서 전액 무료 지원중입니다.

Q. 굉장히 가족같은 분위기로 케어를 제공하는것 같아서 보기 좋다.

A. 워낙 오래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고 매일 얼굴을 보기 때문에 가족 보다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또한 가족같은 친절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게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Q. 굉장히 많은 남자 시큐리티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A.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 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신다.

□ 두바이 시내 견학



- 일 시 : 2023. 1. 30(월) 11:30 ~ 17:00
- 장 소 : 두바이 시내 견학



■ 아브라 (두바이 전통 수상택시)

아브라는 아라비아 전통 수상택시로서 두바이에서는 크릭을 건너는 대중교통수단이다. 오래전부터 두바이 경제의 중심지였던 두바이 크릭은 바다에서 시작해 내륙의 라스알코 와일드 센추리까지 14KM 길이며, 데이라와 버두바이지역을 동서로 갈라놓는데 이 크릭을 건너는 작은 목선의 교통수단을 '아브라'라고 부른다.

■ 두바이 프레임 (초대형 액자전망대)

두바이 한복판에 세로 150m, 가로 93m로 만들어진 액자 모양의 건축물이다. 하부에는 어촌마을이었던 과거의 두바이부터 미래 세상의 중심지로서의 두바이를 나타내는 박물관이 꾸며져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가면 두바이 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중앙에 유리로 된 바닥을 통해 아찔함까지 느낄 수 있다.

■ 버즈 알 아랍 호텔

두바이 최고급 호텔 7성급 버즈 알 아랍 호텔
해안으로부터 280m 떨어진 인공섬위에 지어진 총 38개층, 321m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다. 28층에 위치한 헬기 착륙장에서 타이거 우즈가 드라이버 샷을 날리고, 로저 페더러와 안드레 아가시가 비공식 경기를 가져 이목을 끌기도 했다.

■ 팜 주메이라 아일랜드

2010년 완공된 야자나무를 형상화한 인공섬으로 방파제까지 가로,세로 각각 5km의 규모다. 바닷속에 모래를 부어 해수면 위 3m까지 올려 그 위에 섬을 만들었는데 사용된 바위만 700만 톤에 달하며 철, 콘크리트 등의 인공 재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주상 복합 형태의 주거 시설이 있으며,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아틀란티스 더 팜 등 럭셔리 리조트와 각종 휴양시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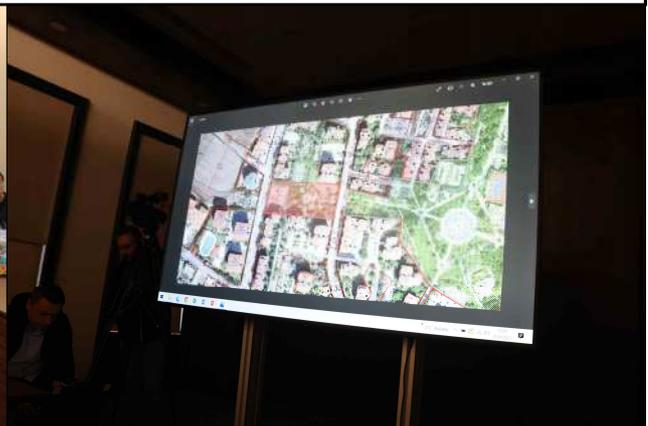
※ 시사점

관광자원이 없는 두바이에서는 자신들의 단점을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항공사를 운영하고 두바이에서 머무를수 있도록 현대식 건물과 호텔을 만들어 세계의 허브 도시로 만들며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있다.

□ 뷰첵메제시 및 시의회



- 일 시 : 2023. 1. 31(화) 16:30 ~ 17:30
- 장 소 : 뷰첵메제시 및 시의회
- 참 석 : 뷰첵메제 시장, 시의회 의장



■ 뷰책메제시 현황

- 위 치 : 이스탄불, 마마라 해협과 뷰책메체호 사이에 위치
- 면 적 : 239km²(※ 천안 : 636.25km²)
- 인 구 : 20만명(여름휴양기간 약80만명 가까이 증가)
- 시 조 직 : 시장 1, 부시장 4
- 특 징 : 해안지역으로 휴양관광도시, 5성급 호텔.대학교 다수 소재
- 시 장 : 닥터 하산아쿤(Dr. Hasan AkGÜN)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cekmece.bel.tr>

○ 뷰책메제시 하산 아쿤 시장



- 이름 : 하산 아쿤 (DR. HASAN AKGÜN)
- 임기 : 1994년 ~ 2023년 (6선 성공, 임기5년)
* 2019.3.31. 지방선거에서 6선 당선됨.
- 학력 : 이스탄불대학교 해양 과학 및 경영 박사
- 가족 : 자녀 4명
※ 친척이 6.25.전쟁에 참전, 매년 부산UN공원에 방문

- 2010. 10. 3 ~ 10. 6 : [하산아쿤 시장 일행\(2명\) 천안 흥타령축제2010 참가](#)
※ 두 도시간 문화교류 협약(2010. 10. 05), 2013년 뷰책메제페스티벌 시장님 초청
- 2022.9.20. ~ 9.25 : 천안 흥타령춤축제2022 방문(하산아쿤 시장 등 4명)

하산 아쿤 시장은 튀르키예를 방문한 충남 시군의회 의장단을 진심으로 환영하였으며, 지난해 천안 흥타령 축제를 다녀왔었던 기억을 말하며 대한민국과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튀르키예에서도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극진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뷰책메제시에서 추진중인 튀르키예 한국의 집 건축공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도희 의장협의회장은 환대해준 뷰책메제시 하산 아쿤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이어진 시의회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 튀르키예 6.25전쟁 참전용사 간담회 및 만찬



- 일 시 : 2023. 1. 31(화) 17:30 ~ 18:00
- 장 소 : Batıköy, İpekçi Sk. No:12,
Büyükcemece/İstanbul,



■ 튀르키예군 한국전 참전 현황

1. 참전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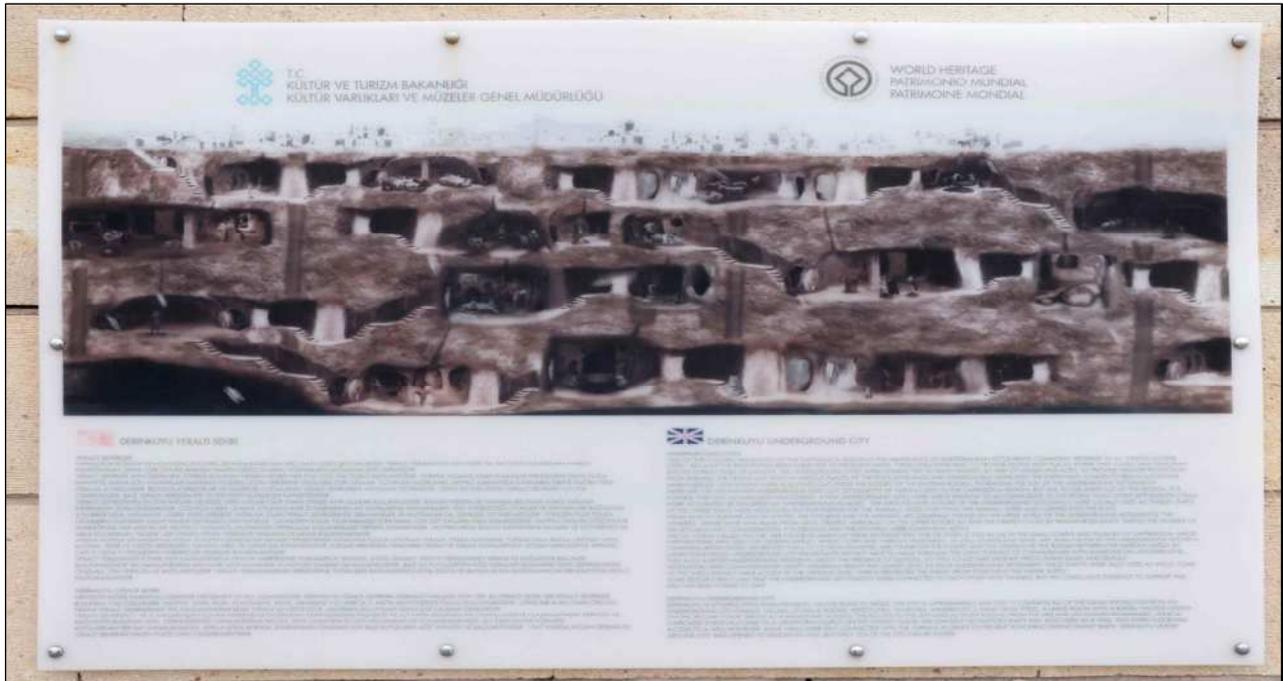
1950.10.19.	튀르키예군 1개 여단(241연대) 5,068명 부산 상륙 - 여단장 : Tahsin Yazici 준장
1950.11.26.-31.	군우리 전투 참가
1951.1.25.-27.	금양장리 및 151고지 전투 참가
1953.5.28.-29.	휴전선 부근 네바다전초 전투 참가
1960년까지	매년 1개 여단 병력 교체 파병
1961년	주력부대 철수, 1개 중대 잔류
1966.7.6.	잔류 1개 중대 완전 철수
1971.6.27.	의장대 11명 최종 철수
1973.11.	앙카라시 한국공원에 참전기념비 건립
1974.9.6.	튀르키예군 참전비 건립(용인 마성)
2017.6.	앙카라 한국공원 개보수

2. 참전 연인원 및 병력 손실

- 참전 연인원 : 21,212명(1950.10.-1953.7.27.)
 - * 1954년~1971년 한국전 종료후 UN 임무수행 : 35,324명
 - * 1950년~1971년 한국파견 : 56,536명
- 전사자 : 966명, 부상자 : 1,155명
- 포 로 : 244명, 부산 유엔묘지 안장 : 462명

정도희 의장협의회장은 튀르키예군이 6.25 참전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주신 참전용사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표했으며, 참전유공자들도 정도희 의장협의회장에게 1950년 당시 튀르키예군 6.25 참전 내용이 실린 신문을 선물하며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의 우정을 다시금 되새길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자리를 옮겨 만찬장에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간의 우정을 다지며 한국과 튀르키예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했다.

□ 데린구유 지하도시



- 일 시 : 2023. 2. 1(수) 13:00 ~ 14:00
- 장 소 : 데린구유



■ 데린구유 지하도시

‘깊은 우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데린구유(Derinkuyu)는 수천년의 역사에 비해 비교적 늦게 세상의 조명을 받았다. 그렇기에 그 신비로움과 비밀스러움은 극에 달한다.

4,000년 전 히타이트 시대 때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이곳은 최대 3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총 20층에 달하는 대규모의 지하도시로 현재는 8층까지 개방한다.

수용인원이 많아지면서 지하 동굴은 더욱 넓고 깊숙해졌고 그 지형도 점점 미로처럼 복잡해졌다. 지하동굴 안에는 주거지로 사용하던 방이나, 부엌, 교회, 곡물저장소, 동물 사육장, 포도주 저장실, 성찬 및 세례식을 행한 장소, 신학교, 지하매장지 등 완전한 도시의 기능을 갖추었다.

게다가 긴급 상황시 다른 지하 도시로 피신할 수 있는 지하터널이 9km나 이어져 있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보면서도 그 규모와 존재 자체가 믿기 어려울 정도다.

※ 시사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이 곳에 들어와 교육기관과 교회, 와인 저장고 등을 축조하기 시작해 지하에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종교의 힘을 새삼 다시 느낄수 있었다.

튀르키예의 종교가 이슬람이 9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성지에 대해 보존하고 이를 관광상품화 시켜 놓은 것은 높게 살만한 대목이며, 오늘날 일반인에게는 소수만이 공개되고 있는 것도 향후 후손들이 관광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카파도키아



- 일 시 : 2023. 2. 1(수) 15:00 ~ 16:00
- 장 소 : 카파도키아



■ 카파도키아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에서 남쪽으로 300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카파도키아는 마치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을만한 갖가지 버섯 모양의 기암괴석들이 드넓은 계곡지대에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물론 이 곳에서는 터키의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복적거리는 시장이나 양파모양의 사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카파도키아의 참 매력은 좀 더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

원뿔을 엮어 놓은 듯한 용암층 바위 속에 이 곳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삶의 터전을 마련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지 이외에도 교회와 지성소, 사원들을 만들어 냈다.

대규모 기암 지대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불가사의한 바위들이 많으며 아나톨리아 고원 한가운데에 자리한다,

카파도키아는 실크 로드가 통과하는 길목으로서 대상 행렬이 근대까지 이어지며,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다,

1만 개의 바위동굴과 105개의 바위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계곡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수도사들의 은신처 역할을 했던 곳이다.

※ 시사점

카파도키아(Cappadocia)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로마인들로부터 도망쳐 온 기독교인들이 기도 할 곳과 살기 위한 거주지로서, 동로마제국 시대에 종교박해가 시작되자 신자들은 동굴이나 바위에 구멍을 뚫어 지하도시를 건설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

현재도 100여 개의 교회가 남아 있으며 이 석굴 교회가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에서 기독교인들이 생존할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았다.

□ 알라딘자미



- 일 시 : 2023. 2. 2(목) 11:00 ~ 12:00
- 장 소 : 알라딘자미



■ 알라딘자미

셀주크왕조의 모스크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12세기 중반~13세기 중반에 걸쳐 완공되었다. 튀르키예 코니아의 알라딘 언덕에 있으며, 모스크에서 코니아 시내가 내려다 보인다.

전체 평면은 역사다리꼴의 형태를 하고 있다. 북쪽에는 넓은 중정(中庭)이 있고, 남쪽 서편은 키블라, 동편으로는 예배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예배당은 여섯 줄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일곱 줄의 복도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 기둥은 모두 다른 크기이며 사용된 장식과 명문이 상이하고, 기둥의 제작 년도 또한 모두 다르다. 룸 셀주크가 코니아 지방을 점령하기 이전 1080년까지 모스크 부지에는 비잔틴건축 양식의 성당이 있었고, 당시 성당 내부 건축 구조물이 모스크 건축에 재사용되었다.

각 기둥은 벽돌로 만들어 진 아치로 연결되어 있으며, 평평한 지붕으로 덮여 있다.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는 미흐라브는 주 출입구의 반대편에 위치하며, 중앙부에는 니치가 있다. 미흐라브의 주변부는 푸른색 타일과 아랍어 명문(銘文)이 장식되어 있다. 민바르는 나무로 제작되어 있고, 아랍어 명문이 조각되어 있다. 모스크 안에 함께 건설 된 영묘는 각이 지고 뾰족한 형태의 지붕과 각이 있는 기둥 형태의 하층부로 구성되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영묘와 유사한 형태이다.

중정의 벽에 새겨진 명문에는 모스크 건설을 후원한 술탄이 기재되어 있다. 명문에 새겨진 술탄은 메수드 1세(Mesud I, 재위 1116~55), 킬리카 르슬란 2세, 이젯딘 카이카우스 1세(Izzeddin Kaykaus I. 재위 1210~20), 알라딘 카이쿠바드 1세이다. 모스크의 건설을 계획하고 처음으로 명령한 것은 메수드 1세였다. 민바르에 새겨진 명문에 따르면, 1155년 모스크가 처음으로 완공되었는데, 이를 통해 알라딘 모스크가 아나톨리아 지방 최초의 모스크임을 알 수 있다. 1219년 카이카우스 1세는 모스크를 재건하면서 주 출입구를 서쪽에서 북쪽으로 변경하였다. 코니아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쿠바다바드 왕궁과 마주하는 파사드를 북쪽 외벽에 축조하였다.

※ 시사점

1155년 모스크가 완공된 오래된 건물임에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보존과 관리에 힘써 왔음을 느낄수 있었으며, 문화재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 하드리아누스의 문 & 안탈리아



- 일 시 : 2023. 2. 3(목) 7:00 ~ 8:00
- 장 소 : 안탈리아



■ 안탈리아

튀르키예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인구 약 220만 명의 도시. 같은 이름의 도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인구 기준으로 이스탄불(약 1,400만), 앙카라(약 500만), 이즈미르(약 400만), 부르사(약 280만) 다음으로 튀르키예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이자 튀르키예 최대의 휴양도시이며, 동지중해와 맞닿는 튀르키예의 남해안을 대표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옛 지명은 아탈리아 (Ἀττάλεια)로, 페르가몬 왕국의 아탈로스 2세가 해군 기지로 세운 것에서 비롯되었다. 인근 페르게, 아스펜도스, 시데 유적 등도 인기 관광지이다.

■ 하드리아누스의 문

하드리아누스를 기리기 위한 하드리아누스의 문(Hadrian's Gate) 기원전 2세기에 세운 장식용의 대리석 아치로 로마시대의 영광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 중에 하나다.

130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 도시를 통치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건축물이며, 고대 팜필리아 지방에서 가장 볼만한 명소로 유명하다. 이 건축물은 과거 성벽의 출입구중 하나의 역할을 했으며, 지금은 구시가지로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한다.

하드리아누스의 문 아래쪽으로 투명한 유리판 아래로는 고대에 만들어진 길 유적이 남아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 지중해 유람선

안탈리아 구시가지에서 도보로 5~10분 정도 내려가면 유람선들이 즐비해 있다. 지중해 바다의 푸른 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지중해와 안탈리아 해안 절벽을 따라 약 1시간 정도 유람선으로 관람할 수 있다.

※ 시사점

지중해 유람선에 태극기를 게양해 이국만리에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것 같았다.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느꼈다.

□ 파묵갈레



- 일 시 : 2023. 2. 3(금) 15:00 ~ 16:30
- 장 소 : 파묵갈레



■ 파묵칼레

면(綿, 파무크)의 성(城, 칼레)이란 지명은 이 도시 앞면의 절벽을 덮는 흰 종유석과 같은 온천의 분출이 장관인 것에서 연유한다. 페르가몬의 왕 (에우메네스2세)이 창건한 것이라 전하나, 유구는 거의 로마 시대 이후의 것이다. 대욕장(2세기), 로마 극장(2세기)과 열주도로에 면한 아폴로 신전 (3세기), 님파에(4세기), 교회당(5세기 초) 등 흥미있는 건축들이 있다. 시의 북방 약 2km에 걸쳐 묘지가 있고 100을 넘는 투물루스(tumulus, 분묘), 석관, 집모양의 묘가 있다.

■ 히에라폴리스

히에라폴리스는 파묵칼레의 언덕 위에 세워진 고대도시이며, 기원전 190년에 페르가몬의 왕조였던 유메네스 2세에 의해 처음 세워져 로마 시대의 온천지로서 2,3세기에 가장 번영했던 고대 도시중 하나다.

기원전 130년에 이곳을 정복한 로마인은 이 도시를 ‘성스러운 도시(히에라폴리스)’라고 불렀다. 그리스어 ‘히에로스’는 신성함을 뜻한다

고대 15만명의 인구가 거주했던 대도시였지만, 지진으로 모두 소멸했고, 현재는 15,000석 규모의 원형극장만 복원한 상태다.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유적을 동시에 갖춘 이곳은 198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히에라폴리스의 역사는 소아시아 반도의 다른 많은 헬레니즘 도시들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어, 기원전 129년에 로마인들에게 점령당한 히에라폴리스는 새로운 통치자들 아래에서 번영했다.

이곳은 아나톨리아인, 마케도니아인, 로마인, 유대인들이 뒤섞여 지내는 ‘국제 도시’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온천으로 와서 물을 가져갔는데, 이 물은 양모를 씻고 염색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다.

※ 시사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세계유산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장 형태를 매년 바꿔가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객 유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례는 배워야 할 것 같다.

□ 에페소



- 일 시 : 2023. 2. 4(토) 12:00 ~ 15:00
- 장 소 : 에페소



■ 에페소

튀르키예 서부의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이즈미르주의 카이스트로스강 어귀에 있던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 유적으로, 기독교 성서에서는 에페소 또는 에베소로 언급된다. 에페수스는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로 건설되어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요충지로 번성하였다.

기원전 6세기 후반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시 쇠퇴하였다가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정복된 뒤 새로운 에페수스가 건설되면서 헬레니즘 도시로 부흥하였다.

기원전 2세기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시아 속주의 수도로서 지중해 동부 교역의 중심지가 되어 전성기를 누렸으며,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시로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지정된 면적은 663ha이며, 주변의 완충지역(buffer zone) 면적은 1163ha이다. 등재된 유산은 크게 추쿠리치(Cukurici) 둔덕, 에페수스 고대 도시, 아르테미스 신전(Artemision)과 중세 주거지가 남아 있는 아야술루크(Ayasuluk) 언덕, 성모 마리아의 집(House of Virgin Mary)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성모 마리아의 집은 예수가 죽은 지 4~6년 후부터 사도 요한이 성모 마리아의 여생을 돌보며 지낸 곳으로 알려져 있다. 1세기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 성모 마리아를 위한 집을 지었고, 4세기에 폐허가 된 집터에 십자모양에 돔 구조의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이는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최초의 바실리카이다. 성모 마리아가 여생을 보낸 소재지에 대해서는 에페수스와 예루살렘의 두 가지 설이 전해왔다. 1881년 이곳에서 유적이 처음 발견된 뒤 1896년 교황 레오 13세가 성모 마리아의 선종(善終) 장소로 인정하였고, 1961년에는 교황 요한 23세가 성모 마리아의 집으로 공식 인정하고 성지(聖地)로 선포하였다.

※ 시사점

가톨릭 신자들의 중요한 성지 순례 코스로 보령, 당진, 서산 등 카톨릭이 일찍이 들어왔던 충남서해안 시군이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성지순례 코스를 함께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 튀르키예 한인회 간담회



- 일 시 : 2023. 2. 5(일) 12:00 ~ 13:00
- 장 소 : 이스탄불 내 수상식당
- 참 석 : 이스탄불 한인회장 김영훈



■ 튀르키예 한인회 현황

1. 역대 한인회장

제 19 대	2022년 1월 ~ 2023년 12월	김영훈 (누가베스트 대표)
제 18 대	2018년 6월 ~ 2021년 12월	박용덕 ((사)터-한문화교류협회 회장)
제 17 대	2016년 6월 ~ 2018년 5월	박용덕 ((사)터-한문화교류협회 회장)
제 16 대	2014년 5월 ~ 2016년 5월	박남희 (윤여행사 실장)
제 15 대	2012년 5월 ~ 2014년 4월	박남희 (윤여행사 실장)
제 14 대	2010년 5월 ~ 2012년 4월	김성렬 (SLD 대표)
제 13 대	2008년 5월 ~ 2010년 4월	조규백 (스포렉스 대표)
제 12 대	2006년 5월 ~ 2008년 4월	조규백 (스포렉스 대표)
제 11 대	2004년 5월 ~ 2006년 4월	김상진 (BIOTEK 대표)
제 10 대	2002년 5월 ~ 2004년 4월	정지섭 (미스도스 대표)
제 9 대	2000년 5월 ~ 2002년 4월	김성렬 (스포렉스 라도르 대표)
제 8 대	1998년 5월 ~ 2000년 4월	김성렬 (스포렉스 라도르 대표)
제 7 대	1996년 5월 ~ 1998년 4월	최덕삼 (소아시아 농수산 대표)
제 6 대	1994년 5월 ~ 1996년 4월	윤경웅 (트란스만 대표)
제 5 대	1993년 5월 ~ 1994년 4월	윤경웅 (트란스만 대표)
제 4 대	1992년 5월 ~ 1993년 4월	최평화 (태극여행사 대표)
제 3 대	1991년 5월 ~ 1992년 4월	윤대우 (윤여행사 대표)
제 2 대	1990년 5월 ~ 1991년 4월	윤대우 (윤여행사 대표)
제 1 대	1989년 5월 ~ 1990년 4월	윤대우 (윤여행사 대표)

정도희 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시군의회 의장들은 김영훈 한인회장님을 만나 튀르키예에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한인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현지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훈 한인회장은 생각보다는 적은 수의 한인이 생활하고 있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고국에서도 튀르키예를 사랑해주고 격려해 달라고 말했다.

□ LOTUS 요양원



- 일 시 : 2023. 2. 6(월) 09:00 ~ 10:00
- 장 소 : LOTUS 요양원
- 참 석 : Dr. Taner Berktaş <요양원 대표>



LOTUS HUZUREVI 요양원

○ 설립자 : DR. TANER - 통증치료 전문가.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및 욕창 치료

1. 숙박 서비스 : 건물 및 시설에 고령자 및 장애인의 사용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개별 숙박시설 제공, 가족 및 사회 정책과 보건부의 법률 및 기준을 준수, 물, 연기 및 화재 감지기, 24시간 보안 시스템

2. 유지보수 서비스 : 24시간 노인 및 환자 치료 인력 대기, 구강 및 목욕 서비스, 헤어 및 네일케어 서비스, 보습 솔루션 적용, 세탁 및 청소 직원 지원

3. 영양 서비스 : 영양사가 결정한 주 3식과 간식 2식, 질병에 필요한 적합한 영양프로그램 운영

4. 건강 서비스 : 전문가 통제 및 후속 조치, 필요한 치료 및 약물적용, 환자의 정기적인 관리 및 후속 조치, 급성 및 만성 질환의 추적 및 관리, 건강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안내

○ 치료 및 재활 서비스

1. 재활서비스 : 정신 활동, 정신운동활동, 예술활동, 운동 및 스포츠 활동 등으로 노인과 환자의 재활을 돕고 있다. 또한, 우리 기관에서는 음악, 취미, 놀이, 영적 돌봄, 나눔의 시간, 야외 및 호흡활동도 병행한다. 고객의 개인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심리적 지원과 통제가 이뤄진다. 이러한 지원 및 통제는 각 개인의 필요에 따라 특별히 준비되고 투명하게 적용된다.

2. 치료서비스 : 오존요법 및 메조테라피 방법을 적용한다.

·오존요법이 사용되는 질병 : 당뇨병, 류머티스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순화장애,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치매, 폐기종, COPD, 급성 호흡 스트레스, 고혈압, 정맥부전, 말초동맥질환, 정맥울혈, 치유되지 않는 만성상처, 당뇨병성 족부 염증, 암치료에서 보완요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메조테라피가 적용되는 질환 : 머리, 목, 관절 및 편두통, 허리 통증치료.

※ 시사점

총 46명의 환자가 거주하고 각층별로 담당간호사 및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상태에 따른 층별 분리, 개인별 맞춤 치료로 24시간 관리가 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행됨에 이에 맞는 시설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 CEVREVAKFI 환경재단



- 일 시 : 2023. 2. 6(월) 11:00 ~ 12:00
- 장 소 : CEVREVAKFI 환경재단
- 참 석 : Dr. Taner Berktaş <요양원 대표>



■ CEVREVAKFI 환경재단

환경재단은 튀르키예 자연, 역사 및 문화 자산을 보호, 유지 및 개발하고, 환경 가치가 독특한 방식으로 미래 세대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이러한 가치를 모든 인류에게 소개하고, 환경 문제를 보호하고, 환경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9년 다양한 직업의 환경 자원 봉사자 그룹이 위상 분야에서 보편적인 수준에서 선도적이고 효과적인 비정부기구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한 환경 재단은 사회, 문화 및 과학 연구를 통해 모든 자산의 존재 목적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사명을 채택했다고 한다.

CEVREVAKFI 환경재단은 환경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공식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하고, 튀르키예의 환경 가치, 자연, 역사 및 문화 자산의 보호 및 개발을 위한 법률의 틀 내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환경 정책 개발에 기여해 왔다. 새롭고 독창적이며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환경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

■ 한국-튀르키예 우정의 숲

대규모 산불 피해를 본 터키를 위해 한국인이 기부한 묘목 12만 그루로 '한·터 우정의 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주터키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터키 NGO인 환경단체연대협회(CEKUD)의 에윽 데빅 회장 및 임원진이 대사관을 방문해 한국 국민이 기부한 묘목으로 조성할 '한·터 우정의 숲'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데빅 회장은 2020 도쿄 올림픽 한국-터키 여자배구 8강전을 계기로 배구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의 팬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민의 묘목 기부에 사의를 표하고 이월익 주터키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시사점

대한민국-튀르키예 우정의 숲 조성은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묘목 기부가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과 이미지를 많이 고취시켰으며, 튀르키예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선한 이미지가 한층 높아졌음을 연수기간 내내 느낄 수 있었다.

□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



- 일 시 : 2023. 2. 6(월) 15:00 ~ 16:00
- 장 소 : 이스탄불 무역관
- 참 석 : 이도형 부관장



■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

KOTRA는 창립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의 무역진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국가 무역투자진흥기관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이 글로벌 ESG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관 자체적인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를 선도하고자 힘쓰고 있다.

■ 튀르키예 진출 대한민국 주요기업

대 튀르키예 투자진출 주요 기업(제조, 지상사, 프로젝트 참여사)

연번	회사명	투자 시기	투자내역
1	(주)카스	1992	이스탄불, 전자저울 판매법인
2	현대자동차	1997	이즈미트, 자동차공장 합작투자(Kibar사)
3	한일이화	1997	이즈미트, 자동차내장제품 합작생산
4	경인양행	1997	아다나/메르신, 염료생산 합작투자
5	만도기계	1997	부르사, 자동차용 속옵소버 합작생산
6	LG전자	2000	게브제, 에어컨생산 합작투자(아철크사)
7	CJ	2004	부르사, 사료공장 단독투자
8	미스도스	2004	테킬다, 장갑공장
9	한라공조	2005	게브제, 자동차용 에어컨
10	(주)일진	2005	게브제, 에어컨 부품
11	KCC	2006	이즈미트, 도료 단독투자
12	현대로템(주)	2006	아다파자르, 전동차량
13	KT&G	2006	이즈미르, 담배
14	효성	2007	체르케즈코이, 스판덱스
15	대양금속	2007	출루, 스테인레스 판재
16	우리텍	2007	게브제, 에어컨 부품
17	호원	2007	이즈미트, 자동차 차체 프레스
18	YG-1	2007	이스탄불, 절삭공구, tool holder
19	SK건설	2009	토목 엔지니어링 및 건설
20	포스코	2010	부르사, 철강재 가공 및 냉연
21	서일	2011	이즈미트, 음료용 빨대 공장
22	남동발전	2012	발전프로젝트
23	수출입은행	2013	이스탄불 사무소 설립
24	마루 ENC	2013	이스탄불 지사설립
25	영산 TR	2013	이즈미트 생산법인 설립
26	한화큐셀	2014	이스탄불 법인 설립
27	삼성SDS	2014	이스탄불 법인 설립
28	대양글로벌	2015	이즈미트 건설무역
29	CJ엔터테인먼트	2017	튀르키예 영화엔터테인먼트(영화관) 사업

IV 시사점

1.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방안 마련

- '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으로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35년에는 30.1%, '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2년 24.6명이며, '35년에는 48.6명, '50년에는 78.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 환경정책

- 빨리빨리 문화로 1950년 6.25 전쟁 후 급속한 성장을 했으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배경 이후에는 무너진 환경정책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V 정책제언

- 두바이 국립요양원을 통해 국가에서 부담하여 국민은 전액무료로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현실을 통해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잡아야 할 때이며, 지방정부의 역할도 한번 되새길 필요 있음.
- 튀르키예 주요 관광지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유와 환경의 소중함을 알수 있었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인샬랴'라는 삶을 추구하는 튀르키예 사람들의 느긋함을 환경정책에 접목할 필요 있음.
-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민간과 연계한 사업 발굴을 통해 충남형 복지 및 환경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수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